포커스 | 판타지 영화 사상 첫 1000만 관객 돌파…'신과함께:죄와 벌'의 모든 것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제작 리얼라이즈픽쳐스)이 4일 1000만 클럽에 합류했다. 지난해 12월20일 개봉해 16일 만에 거둔 성과다. 2004년 '실미도'가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이후 작년 8월 '택시운전사'까지 15편의 1000만 한국영화가 탄생했고, '신과함께'가 그 뒤를 이었다. '신과함께'는 컴퓨터그래픽 등 시각 특수효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해 한국영화의 새로운 전환점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까지 드라마틱한 탄생 과정을 거쳤다. 영화 속 7개의 지옥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 흥행의 견인차. 제작진의 꼼꼼한 설계로 구현됐다. '신과함께'는 올 여름 후속편을 내놓는다. 이후 드라마로도 제작된다.

시나리오 대수술·2200여개 CG·안티 홍역…6년 산고의 기적

영화만큼 드라마틱했던 '신과함께' 탄생기

1 원작 웹툰 영화화…판권 구입~개봉까지 6년
2 전체장면 88% 특수효과…CG 기술의 결정체
3 내용 너무 방대…김용화 감독 대본 전폭 수정
4 원작 핵심 주인공 사라져 개봉전 안티 공세도
5 가족애·배우들 명연기·겨울 개봉 흥행 한 몫

영화 '신과함께'가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4일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특수효과 등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흥행을 예측한 의견은 많았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폭발적인 속도일 줄은 몰랐다. '신과함께:죄와벌'(신과함께)이 파죽지세의 흥행세를 이어가며 4일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속에 1500만 관객 동원도 큰 무리가 아니라는 예측도 나온다.

'신과함께'가 탄생하기까지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과정을 거쳤다. 유명한 원작 웹툰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은 난관의 연속. 판권 구입부터 개봉까지 6년이 걸렸다.

●VFX·CG 기술력…한국영화 전환점

'신과함께'의 흥행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지만 단연 주목해야 할 성과는 시각 특수효과(VFX)와 컴퓨터그래픽(CG)으로 완성된 판타지 영화의 첫 1000만 돌파다. 실화 소재나 사극, 시대극 등 특정 장르에 집중된 한국영화의 범위가 이제는 기술력으로 대표되는 판타지로 확대됐다는 신호탄이다.

'신과함께' 속 VFX 장면은 2200여개에 달한다. 전체 장면 가운데 88%를 차지한다.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 특수효과가 삽입됐다는 의미. 기술력으로 구현된 흥미로운 장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연출을 맡은 김용화 감독은 앞서 고릴라가 야구선수로 활약하는 영화 '미스터 고'를 통해 이미 VFX 등 기술력에 관한한 국내 최고 실력을 갖췄다. 최근 2~3년 동안 중국영화 '몽키킹', '적인걸2' 등 흥행작의 VFX까지 담당하면서 실력을 끌어올렸다. 감독이 개봉 전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CG"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예정된 흥행작'은 아니었다. '가장 팬이 많다'는 원작 웹툰이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용화 감독은 가장 먼저 연출을 제안 받았지만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음엔 거절했다. 이후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 맡기도 했지만 역시 시나리오 작업에서 난항을 겪어 영화화가 지연됐다. 이후 다시 김용화 감독의 손에 들어왔고 과감하게 시나리오를 수정, 지금의 틀을 갖췄다.

●개봉 전 안티 급증…개봉 연기가 '신의 한 수'

'신과함께'는 개봉 전 '안티'의 공격에 직면했다. 원작의 핵심 주인공(진기한)이 영화에선 사라졌기 때문.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부터 공격이 시작됐고, 부정적인 반응이 증폭되면서 제작진과 출연 배우들은 영화 소개보다 원작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용화 감독은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30분간의 영화로 축약하는 데 있어 앞선 감독들의 시행착오를 밟지 않아야 했다"며 "영화와 웹툰의 관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작이 가진 세계관만 가져오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관객이 쉽게 영화에 몰입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하정우와 주지훈, 김향기로 이뤄진 저승삼차사와 지옥 재판을 받는 차태현이 저승에서 한 축을 이룬다면 군대 선임병과 후임 역을 나눠 맡은 김동욱과 도경수는 이승의 이야기를 이끈다. 절절한 가족애를 자극하는 눈물코드, 적재적소에 등장한 '스타 조연' 이정재 김하늘 오달수의 활약도 빼놓기 어렵다.

'신과함께' 흥행의 배경에는 개봉 시기도 있다. 당초 지난해 여름 '군함도' '택시운전사'와 나란히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후반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독의 요청으로 공개 시기가 겨울로 연기됐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빅시즌에 대작의 개봉 시기를 미리 확정해놓는 배급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강동영 팀장은 "마침 '청년경찰'이 당시 여름 영화들과 비교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과함께'와 순서를 바꿨다"며 "영화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가 오히려 배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결국 개봉 시기 변경은 '신의 한 수'가 됐다. '청년경찰'은 지난해 563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신과함께' 흥행 이끈 '7개 지옥의 비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감히 상상해본 적도 없는 곳이다. '신과함께:죄와벌'에서 주인공 자홍(차태현)은 사후 7개의 지옥을 거치며 재판을 받는다. 차례로 소개되는 지옥의 모습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김용화 감독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저승을 관객이 가장 익숙하게 느낄만한 자연의 물성으로 구현해 현실과의 이질감을 줄였다"고 밝혔다. 꼼꼼한 설계로 탄생한 지옥은 각각 불과 물, 얼음 등 형질이 반영됐다.

영화에 처음 등장하는 지옥이라는 점에서 관객이 보자마자 섬뜩함 느끼도록 설계.

이국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느낌 연출. 휴양지 보라카이를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구성.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설정에서 출발. 지옥을 지키는 대왕을 아역 김수안이 연기.

타인에게 상처를 준 사람, 죽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가차 없이 얼려버린다는 설정.

배신당한 조선 여인의 수기에서 영감. 가장 큰 배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란 메시지.

폭력은 곧 또 다른 폭력으로 돌아온다는 설정을 중력과 무중력으로 표현.

염라대왕이 있는 지옥. 모래처럼 모든 걸 파묻을 수 있다는 설정 아래 고비사막에서 촬영.

삼차사와 염라대왕의 대결…올 여름 2부 '인과 연' 개봉

끝나지 않은 흥행 신화

제작진 410억 투입 1·2부 이미 완성
드라마 판권도 확보 내년에 제작키로

영화 '신과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웹툰 3부작을 원작삼아 2부작으로 구성하는 작품이다. 현재 상영 중인 1부 '죄와 벌'에 이어 올해 여름 2부 '인과 연'이 관객을 만나게 된다.

'죄와 벌'은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관 자홍(차태현)이 저승 삼차사의 변호 속에 모두 7개의 지옥을 통과하며 이승의 죄를 심판 받는 형식에다 진한 가족애의 이야기를 얹었다. 2부 '인과 연'은 삼차사인 강림(하정우), 해원맥(주지훈), 덕춘(김향기)의 과거를 드러내며 염라대왕(이정재)과 펼치는 대결을 그린다. 여기에 1부 속 자홍의 동생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수홍(김동욱)의 지옥 재판 과정이 그려지고, 철거민을 보호하는 성주신(마동석)의 활약이 또 하나의 굵은 줄기를 이룬다.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 원동연 대표는 4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원작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 두 편으로 나눠 영화화했다"면서 "1부에서 각 캐릭터를 소개한 데 이어 2부에서는 이들의 활약상과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에 관한 메시지를 펼친다"고 밝혔다.

연출자 김용화 감독 등 제작진은 이미 1부와 2부를 동시에 작업해 완성해 놓았다. 각각 205억원, 모두 41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는 1부의 현재 흥행세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 원 대표는 "드라마 판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올해 대본을 쓰고 내년 사전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김용화 감독이 직접 연출할지 아니면 전체 작업을 총괄하는 총감독의 역할을 할지에 관해 현재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과함께'는 국내 개봉에 앞서 해외 100여개국에 판매되기도 했다. 대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뒤 5일 홍콩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 대표는 "영화는 '케이웹툰'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해외에 널리 알리려 했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시장의 확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화를 통해 해외시장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풍부한 원천 콘텐츠로서 웹툰까지 소개하는 전략"이라고 원 대표는 설명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절절한 가족애…감동의 눈물보다 뜨거운 것은 없다

1000만 클럽 '흥행 공식'

모든 연령층 눈물샘 자극…가족 관객에 어필
화려한 영상·새로운 장르 등 참신성도 중요

'남녀노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넓은 타깃층을 지닌 영화.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묵직한 감동.'

영화진흥위원회가 2014년 10월 내놓은 정책보고서 '통계 분석으로 본 천만 영화'는 '1000만 클럽' 영화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했다. '신과함께'야말로 이에 가장 어울릴 만한 성과물이다. 화려한 영상 기술력을 통해 이전의 한국영화와는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한 가족애의 정서를 담아냄으로써 어떤 연령층에도 쉽게 다가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말에 이르러 관객의 눈에서 진하게 흘러내리는 눈물의 힘이 그만큼 흥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역대 1000만 한국영화 가운데 상당수 작품이 이 같은 감동과 눈물의 이야기를 내세웠다. 1000만 관객 시대의 포문을 연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를 비롯해 16편의 1000만 한국영화 가운데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7번방의 선물' '변호인' '명량' '국제시장' '택시운전사' 등 절반이 넘는 작품이 이 같은 메시지와 감동의 이야기에 힘을 실었다. 그만큼 폭넓은 연령층의 관객이 지닌 보편적인 감성과 정서에 다가갔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또 이들 영화가 대부분 겨울 시즌에 선보였다는 점도 눈길을 모은다. '신과함께'는 물론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7번방의 선물' '국제시장' '변호인' 등이 그렇다. '도둑들' '해운대' '괴물' 등 큰 제작비 규모에 화려한 볼거리를 내세운 영화가 여름 극장가를 장악한 것과 대비된다. 연말연시, 성탄절, 길게는 설 연휴까지 이어지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수성과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극장을 찾는 가족단위 관객을 겨냥하는 데 감동과 눈물의 메시지만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그것만으로는 폭발적인 흥행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기존의 이야기와 장르를 답습하지 않는, 신선한 기획과 시각이 아니고서는 흥행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영화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 보고서는 이를 '특정 장르의 관습에 의존하지 않는, 시대적 참신성과 특이성'이라고 적었다.

윤여수 전문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